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김광수**

1. 서론

그동안 서구 학자들은 아프리카 문명이 '아프리카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또는 '순수한·진정한 아프리카 역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폄하하거나 왜곡해왔다. 아프리카 문명이 아프리카인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아프리카는 세계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거나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다.'라는 '아프리카 타자화(Others)' 또는 '주변부화(marginalization)'의 과정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김광수 2005: 42).

기록된 역사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사료와 사하라 사막의 암각화를 통해 사하라 무역로¹⁾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규명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북아프리카와 사헬(Sahel)지역²⁾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Hall 2014; Hunwick 2010; Konczacki and Konczacki 1977; Levtzion and Hopkins 2000; Levtzion and Spalding 2010; McKissack and McKissack 1995; Wright 2007).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Herodotos)는 BC 5세기에 사하라의 무역과 전차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사막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BC 5세기경에 말이 끄는 전차들이 이곳을 왕래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Mauny 1978: 272-341). 또한 카르타고와 로마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하라를 건너 금과 노예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규명되었다(Swanson 1978: 4-5).

사하라 무역은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³⁾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⁴⁾ 특히 수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6S1A5A8018827) 및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교수, 이메일: afrikaans@hanmail.net.

1) 사하라 사막을 두고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 사이에 행해졌던 무역로를 "Trans-Saharan trade route"라 표현하고 있는데 무역의 출발과 종착지가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하라 횡단 무역로'가 타당하다. 그러나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하라 중·횡단 무역로'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 이루어진 모든 무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하라 무역로'로 기술한다.

2) 사헬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접이지대로, 서쪽으로는 세네갈 북부, 동쪽으로는 차드 중부에 이르는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을 지칭한다. 사헬지역은 세네갈,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수단 등이 포함되는데 수단 지역의 일부가 해당한다. 아랍인들은 사하라 지역을 사헬이라는 은유적인 단어로 표현하거나 사막을 남과 북의 경계로 설명하기 위해 '바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질마스(Sijilmasa)와 남쪽의 팀북투(Timbuktu) 같은 도시들을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진 바다의 해안 도시로 생각하여 '사헬의 항구'라고 불렀다(김윤진·김광수 2013: 136-137).

3) 아프리카에서 수단 지역(Sudan Area)은 수단 사바나 지역(Sudan Savanna Area)으로도 불리는데 현재의 수단(북수단과 남수단 지역)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수단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남쪽 경계와 열대우림 북쪽 경계 사이에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 사바나 지대를 지칭한다. 대서양 쪽으로는 케이프 베르데에서 동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 및 홍해에 이르는 지역으로 약 5,500km 이상 펼쳐져 있다. 북쪽으로는 사하라 사막과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서아프리카 열대우림 및 콩고강 유

지역의 사헬지역에 출현한 가나(Ghana), 말리(Mali), 송가이(Songhai), 그리고 카넴-보르누(Kanem-Bornu) 왕국은 사하라 무역을 기반으로 흥망성쇠를 이어갔다. 이 왕국들은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사막 북부지역과 현재의 기니만 연안 남부지역과의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독자적인 아프리카 문명의 꽃을 피웠다(Crowder & Abdullahi 1979: 23-33, Jackson 2001: 196-223, Smith & Nöthling, 1993: 13-18).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는 철기기술의 전파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철기기술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은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며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서 수단 지역으로 전해진 철기기술은 무기와 농기구 제작을 통해 수단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다⁵⁾.

역까지 뻗어있다. 수단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흑인들의 땅'이라는 뜻의 '빌라드 앗수단'(bilad as-Sudan)에서 유래했다(김윤진·김광수 2013: 90). 본고에서는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넴-보르누 왕국의 문명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므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Western Sudan)으로 지칭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 2017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모로코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모하메드 5세대학교(Universite Mohammed V) 아프리카연구소(Institute for African Studies)의 엘 파라 교수(Prof. Yahia Abou El Farah)와 왕립왕궁도서관(Bibliothèque Royale Palais Royal) 관장인 아메스 쇼키(Binebine Ahmend Shaouqui)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하라 무역로에 관한 최근 연구는 2000년 이상 지속한 사하라 무역로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유지되었는지 규명하는 "무역로의 안전(Trade Security)"에 대한 연구와 북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책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해졌는지를 밝히는 "도서의 거래(Book Trade)"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하라 무역로에 대한 학위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essier, Ronald A. 1972. "Muslim Exploitation of West African Gold during the Period of the Fatimid Caliphate." Ph.D. dissert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Nixon, Sam. 2008. "The Archaeology of Early Islamic Trans-Saharan Trading towns in West Africa: a comparative view and progressive methodology from the entrepot of Essouk-Tadmekka." Ph.D. dissertation,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등이 있다. 중요한 논문으로는 Brett, Michael. 1983. "Islam and Trade in the Bilad Al-Sudan, Tenth-Eleventh Century A.D."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24(4): 431-440. Martin, B. G. 1969. "Kanem, Bornu, and the Fazzan: Notes on the Political History of a Trade Route."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10(1): 15-27. McDougall, E. Ann. 1985. "The View from Awdaghust: War, Trade and Social Change in the Southwestern Sahara, from the Eighth to the Fifteenth Century."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26(1): 1-31. McDougall, E. Ann. 1990. "Salts of the Western Sahara: Myths, Mysterie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23(2): 231-257. Swanson, John T. 1975. "The Myth of Trans-Saharan Trade during the Roman Er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8(4): 582-600 등이 있다.

5) 아프리카의 철기 문명과 대장장이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학위 논문으로는 McNaughton, Patric R. 1977. "The Bamana Blacksmiths: A Study of Sculptors and Their Art." Ph.D. dissertatio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Gavua, K. and Apoh, W. 2011. "Alternative Site Conservation Strategies in Ghana: The Adome Ancient Ironworking Si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13(2-3): 212-230. Vansina, Jan. 2006. "Linguistic Evidence for the Introduction of Ironworking into Bantu-Speaking Africa." *History in Africa* 33: 321-361. MacGaffey, Wyatt. 2009. "The Blacksmiths of Tamale: The Dynamics of Space and Time in a Ghanaian Industry." *Africa* 79(2): 169-185 등이 있다. 출판된 문헌 자료로는 Herbert, Eugenia W. 1994. *Iron, Gender, and Power: Rituals of Transformation in African Societies* (African Systems of Thought). Indiana University Press. Hull, Richard W. 1977. *African Cities and Towns before the European Conquest*. W. W. Norton & Company. Lovejoy, Paul E. 2005. *Ecology and Ethnography of Muslim Trade in West Africa*. Africa World Press, Inc. McNaughton, Patrick. 1993. *The Mande Blacksmiths: Knowledge, Power, and Art in West Africa*. Indiana University Press. Oliver, Roland and Fagan, Brian M. 1975. *Africa in the Iron Age: c.500*

본고에서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이 '사하라'라는 '사막의 바다'를 통해 북아프리카 및 지중해 문명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어떻게 교류하며 발전했는지 밝힘으로써 '아프리카 역사는 세계사의 중심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이 지중해 문명의 주변부인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문명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하라 무역로가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기원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 문명이 고유의 아프리카 문명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교류

베르베르인은 사하라 사막이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과 교류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다. 베르베르 유목민들은 오아시스를 이용해 이주와 정착을 계속 확대했다. 이들은 산발적으로 사하라 사막을 지나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페니키아인이 카르타고를 건설할 당시 이미 베르베르인이 사용하던 기존의 교역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타가 사하라에 도입된 것은 AD 2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헤로도토스는 베르베르인 암각화에 짐을 실은 노새와 말이 끄는 수레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Mauny 1978: 272-341).

무슬림의 북아프리카 정복은 아프리카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슬람 세계로 편입하였고 역동적인 교역을 촉진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과 부의 급격한 성장에 원동력을 제공했으며 도시에서 더욱 활발했다. 북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금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고, 금화를 주조했다. 금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주로 보급되었으며 AD 750년경 이후부터 사하라 무역이 급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파티미드(Fatimid)와 알모라비드(Almoravid) 시기에 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금은 이집트를 제외하고 13세기 유럽으로 유입되기 이전까지 지중해 세계에서 북아프리카의 부유함과 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김광수 2004: 456-457).

AD 1000년 중반까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은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나이지 삼각주(Niger Delta)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AD 400년대 초에는 젠네-제노(Jenne-Jeno) 또는 자(Ja) 같은 도시들이 나타났다. 이 지역은 서아프리카 나이지 강 유역의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어업, 목축, 사냥, 야금술, 도기제작, 직물, 그리고 무역을 포함한 생산 집단의 특화 때문에 증가하였다. 상업적 물류체계의 성장은 대양에서 사막까지 다양한 생태적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상과 판매업자, 운송업자 그리고 금융업자들이 중심이 된 고유의 조직을 발전시켰다. 기본적인 교역품은 식료품, 소금, 철 그리고 직물 등이었으며 사치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중요한 거래 물품은 구리합금, 콜라 열매(kola-nuts), 아프리카 후추(malaguetta) 등이었으며, AD 200년 또는 300년 초에는 튀니지로 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김광수 2004: 457).

중요한 사회의 진보와 공간의 재구성은 사회-경제 발전과 동반되어 나타났다. 수단 지역에서는 가나 왕국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가나 왕국은 하나의 신성화된 왕권을 받아들이며

B.C. to A.D. 14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midt, Peter R. 1997. *Iron Technology in East Africa: Symbolism, Science, and Archae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등이 있다.

비교적 작은 집단들이 모여 연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나이지 삼각주의 인구 밀집은 왕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경제 및 종교적 목적이나 구성원들의 연합에 의한 “권력 연합(power association)”의 형태로 출현했다. 분명한 직업적 구분은 하위 민족 집단 또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이 금을 찾아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도착한 AD 750년경에 이미 이 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하라 무역은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가 일어났다. 무역로는 더 멀리 뻗어 나갔고 새로운 지역에 마을들과 무역 중심지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AD 800~900년 무렵 이보 우크우(Igbo Ukwu)는 차드 호수 서쪽의 수단 지역을 지나 북아프리카에 해안 근처까지, 그리고 베누에(Benue) 주변의 광산지역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최근의 연구를 통해 AD 1000년 무렵 서아프리카의 모든 주요 지역들은 무역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새로운 도시들이 아칸(Akan)의 금 생산 지역인 냐로코(Nyarko)와 베고(Begho), 아크라(Accra : Ladoku), 요루바랜드(Yorubaland), 베닌, 샤리(Shari) 저지대 그리고 하우스랜드(Hausaland)에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 무역 중심지들은 정치적 수도가 되기도 하였고 이 도시들은 내륙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광수 2004: 458).

그러나 BC 800년에서 AD 400년 사이에 카르타고인도, 뒤이어 마그레브(Maghrif)의 동쪽 3분의 1을 점령한 로마인도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부터 많은 양의 금과 노예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또한, 뒤이어 이곳을 지배한 반달족, 비잔틴 제국, 그리고 이프리카야(Ifrigiya : 튀니지에서 알제리 동부 지역에 이르는 지역)의 초기 아랍 통치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프리카 고대사와 고고학자인 스테판 젤(Stephane Gsell)과 제롬 카코피노(Jerome Carcopin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D 8세기 이전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정기적이고 조직화된 무역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카르타고는 무역을 위해 모로코 해안 지역까지 무역거점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로마는 튀니지의 뛰어난 농업 생산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Swanson 1978: 255).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위험했지만, 카르타고와 로마 시대에 가능했다. 그리고 실제로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을 따라 무역이 확대되고 지식과 정보가 천천히 사막을 가로질러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 BC 500년경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철기기술이 전해졌다. 그러나 카르타고인이나 로마인 모두 이러한 무역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카르타고인과 로마인이 마그레브 서쪽 3분의 2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치, 그리고 사하라 사막 건너 수단 지역과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Swanson 1978: 255-256).

AD 5~7세기에는 튀니지와 북부 사하라, 특히 페잔(Fazzan)의 오아시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은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 무역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AD 8세기경부터 마그레브 지역이 이슬람화되면서 베르베르인도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무슬림은 노예로 거래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르베르인은 더는 지중해 노예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다. 북아프리카의 상인들은 새로운 노예 공급지를 찾아야 했고, 이로 인해 사하라 무역로의 탐사와 이용이 촉진되었다. AD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초에 알제리와 모로코 무슬림 베르베르인, 특히 타하르트(Tahart)와 시질마사⁶⁾에서 온

6) 2017년 1월 16일과 17일 시질마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븐 토파일 대학교(University of Ibn Tofail)의 나집(Najib Bounahai) 교수는 시질마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천했다. Ronald A. Messier and James A. Miller. 2015. *The Last Civilized Place Sijilmasa and Its*

무슬림 베르베르인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을 방문하는 장거리 무역을 정기적으로 시작했다 (Swanson 1978: 256-257).

사하라 무역은 AD 9세기에 급격히 성장했고, 점점 더 많은 양의 금과 노예가 북아프리카에 도착했다. 사하라 무역에 대한 북아프리카인의 관심이 증가했고 서아프리카의 땅과 사람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9세기 말 알-야프쿠비(al-Yafqubi)의 기록을 시작으로 11세기 알-바크리(al-Bakri)는 마그레브 서쪽 3분의 2의 지역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AD 920년에 튀니지의 파티미드 왕조는 시질마사의 서쪽에 있는 마그레브의 베르베르 공동체를 점령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사하라 교역의 북쪽 종착지에 대한 최초의 관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10세기 이후부터 사하라 무역은 북아프리카의 마을과 도시에 번영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무역로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은 가나, 말리, 송가이 왕국 등 서아프리카 왕국의 문명화에 이바지했다. 할렛(Robin Hallett)이 지적한 것처럼 금과 노예무역은 번영을 가져왔고 미래에 유럽인들이 나이저강과 전설적인 팀북투를 따라 서아프리카를 탐험하는 데 기여했다(Swanson 1978: 257-258).

11세기부터 16세기 사이 아프리카는 황금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에 알려졌다. 이 시기에 서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와 유럽에 황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Bovill 1968: 98-131). 14세기 페르시아 학자인 함드-알라 무스타우피(Hamd-Allah Mustawfi)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금 생산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세 유럽과 지중해에 금만 공급된 것은 아니었다. 상아, 동물 가죽, 노예 등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북아프리카에 공급되었다. 특히 노예는 금 무역과 함께 중요한 품목이었다(Swanson 1978: 2).

여러 학자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보빌(Bovill)은 동쪽의 나일 계곡에서 서쪽의 대서양 지역까지 아프리카 내륙지역을 가로질러 금과 노예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과 노예는 수단 지역과 마그레브 지역의 무역에 중요한 활력소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황금실(golden thread)'이라고 표현했다(1968: 22). 아번-나스르(Jamil Abun-Nasr)는 "BC 5세기에 트리폴리타니아(Tripolitania)에서 출발한 대상(隊商, caravan)에 의한 서아프리카 흑인들과의 무역이 카르타고의 상업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1971: 21). 로우(R.C.C. Law)는 카르타고와 로마시기에 사하라 무역망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카르타고가 서아프리카 해안을 통해 금을 획득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1978: 188). 베실 데이비슨(Basil Davidson)은 로마가 서아프리카와 교역을 하였으며 베르베르인을 통해 잘 조직된 무역 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베르베르인은 그 당시 교역의 중개자로서 서부 수단 지역의 아프리카인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접촉을 하면서 금과 상아를 거래했다는 것이다(1972: 66). 롤랜드 올리버(Roland Oliver)와 페이지(J.D. Fage)는 적어도 BC 15세기부터 지중해와 흑아프리카 사이에 정기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단언했다. 주로 금, 노예, 상아, 타조, 깃털, 그리고 동물 가죽이 중요한 품목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이다(1962: 61).

위와 같이 여러 학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사하라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교류가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교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haran Destin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공동저자인 밀러는 20여 년간 모로코에 살면서 시질마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문헌자료는 시질마사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로 판단된다.

3. 사하라 무역로의 발전

앤토니 홉킨스(Anthony Hopkins)는 사하라 무역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이전에 일부 학자들이 불충분한 역사적 기록을 이유로 사하라 무역로를 부정했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었던 사하라 무역은 BC 10세기 이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와 말이 끄는 전차 또는 2륜 마차를 이용하여 사막을 건넜다. 무역은 BC 5세기경 카르타고인에 의해 발전했고 AD 3세기 이후에는 로마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부터, 그리고 낙타가 소개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AD 4세기에 이르러서는 북아프리카에서 로마의 지배가 붕괴하면서 사하라 무역이 축소되고 중단되었다. AD 533-535 비잔틴 제국이 다시 북아프리카를 정복할 때까지 무역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AD 7세기에 아랍세력이 성장하면서 북아프리카에 정치적 불안정을 발생했으나 추후 사하라 무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Hopkins 1973: 79-80).

사하라 남부의 암각화에 그려진 수레의 그림은 이미 BC 수백 년 전부터 바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사하라 일대에 전해지는 암각화 1,000여 점 가운데 바퀴 운송수단이 묘사된 것은 50여 점 밖에 안 되고 내용이 짐을 싣는 수레라기보다는 경주용 전차인 것으로 볼 때 교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Mauny 1978: 281). 암각화에서 전차를 끄는 짐승은 소가 아니라 말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짐을 나르는 데 말이 가장 효과적인 동물로 이용되었다. 고고학적 증거는 베르베르 유목민이 페니키아 시대부터 물자를 사하라 건너까지 수송했다고 하지만 그 증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교역량은 많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낙타가 이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 낙타는 수레를 끌고 사막을 건너기에 가장 알맞은 운송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혹 양편에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었다.

야생 단봉낙타는 적어도 4,000년 전 아라비아 남부에서 사육된 것으로 보인다. 낙타는 소보다 두 배나 많은 짐을 싣고 바퀴 운송수단으로는 갈 수 없는 사막을 소보다 두 배나 빨리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마차를 대체하고 근동과 중동 일대에서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BC 8세기에 사바(Saba) 왕국이 홍해를 건너 세력을 팽창하면서 단봉낙타가 아프리카에 전해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1920년대에 이집트 북부 파이움(Faiyum) 지역에서는 BC 600년경에 만들어진 92 센티미터짜리 낙타털 밧줄이 발굴되었다(Clutton-Brock 1993). 또한 1980년대에는 이집트 남부 나일 강 유역의 카스르 이브라힘(Qasr Ibrim)에서 BC 770년경의 낙타 똥 무더기가 발견되었다(Clutton-Brock 1993: 66, Rowley-Conwy 1988). 이러한 사실은 낙타가 아라비아 남부에서 곧장 홍해를 건너 아프리카로 전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처음에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정착했다가 이후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를 거쳐 서쪽으로 대륙을 가로질러 대서양으로, 북쪽으로는 나일강 유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Curtin 1984: 21, Leader 1998: 266-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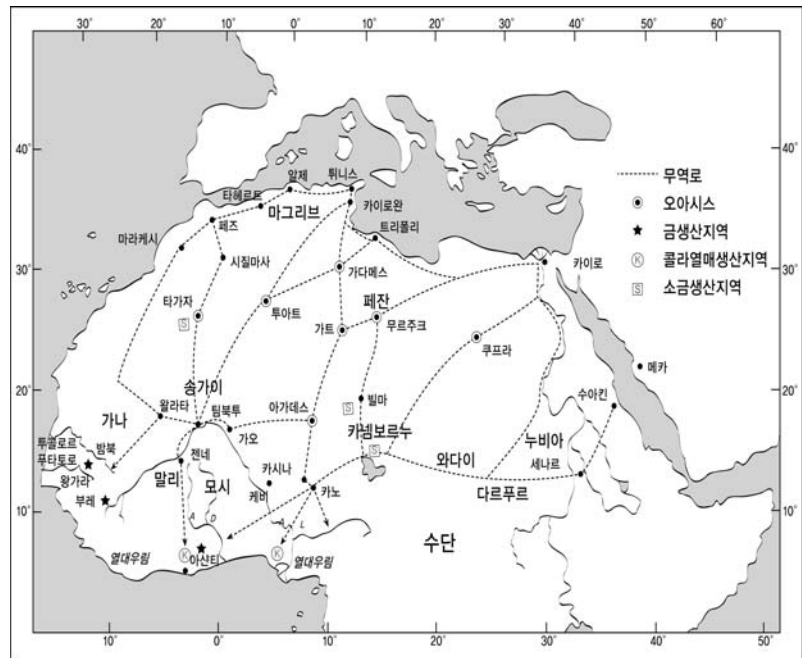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에서 낙타는 무역을 활성화해 사회변화를 일으켰다. 현재 투아레그족의 조상에 해당하는 베르베르족이 AD 2~5세기에 낙타를 사하라 무역로에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urtin 1984: 21). 낙타가 이용되기 전까지 소, 말 등을 이용한 사하라 무역로는 소와 말에게 필요한 먹이와 물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낙타가 이용되면서 무역의 양과 범위를 모두 확장할 수 있었다.

AD 9세기에 들어와 아랍 지리학자들은 모로코와 알제리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

는데, 이는 이 지역이 지중해 국가들에 처음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AD 9세기 말까지 낙타 대상들이 규칙적으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밀, 말린 과일, 대추야자, 건포도, 유리, 납, 철, 그리고 다양한 제조품이 서아프리카의 금, 노예, 하마 가죽, 흑단, 상아 등과 교환되었다. 알-야쿠비(al-Ya'qubi), 이븐 하우갈(Ibn Hawqal), 알-바크리 등이 모로코의 도시와 상품, 알제리의 베르베르 공동체, 그리고 마그레브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구리, 은 및 철 등 생산품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븐 하우갈과 카이로의 게니자(Geniza) 문서는 10세기와 11세기에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구리, 철, 납, 수은 등이 아프리카의 항구를 통해서 동쪽으로 수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wanson 1978: 207-209).

사하라 무역로는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도시까지 복잡한 그물처럼 교차하여 구성되었다. 중요한

<지도1> 사하라 무역로를 통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교역(김윤진·김광수 2013: 117)



무역로는 가나 왕국에서 아다고스트(Audoghast)를 거쳐 모로코까지; 팀북투에서 왈글라(Wargla), 가다메스(Ghadames)와 콧(Qhat)를 거쳐 튀니스까지;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노(Kano)에서 에얼(Air)의 수도인 아가데스(Agades), 가트(Ghat)와 가다메스를 거쳐 튀니스와 트리폴리까지; 그리고 보르누(Bornu)에서 빌마(Bilma)와 무르주크(Murzuk)를 거쳐 트리폴리까지 이어졌고 가트와 트리폴리로부터 다시 이집트까지 계속 이어졌다 (Hrbek 1992: 190-215, Phillipson 1985: 151).

북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는 금과 노예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반면, 서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는 소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다. 금은 서아프리카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가장 중요한 생산품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금은 무슬림 세계에서 화폐의 기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13세기 중반 이후에 기독교 세계에서도 금이 화폐의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Crowder & Abdullahi 1979: 18-22, Ogini 1978: 14-15).

금, 노예, 소금, 벌 보배 조개 그리고 무기들이 주요 교역 물품으로 거래되었지만, 이외에도 무슬림들은 가죽, 상아, 후추, 콜라 열매 그리고 타조 깃털을 가져갔고, 반면 서아프리카 지역은 의복, 비단, 서적, 구슬, 거울 등을 수입했다. 사막에서 운반된 상품의 비용은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을 받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약 3배 정도로 매우 높게 거래되었다. 또한, 사하라 무역로가 장거리 무역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였고 대상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롤랜드 올리버

2001: 201-204).

서아프리카에서 수입된 금과 노예는 북아프리카 무슬림에게 부를 안겨 주었다. AD 9~11 세기에 시질마사와 가나 왕국을 잇는 무역로의 주요 거래 품목은 금이었으며 이 금은 세네갈 상류와 니제르강 상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서아프리카 상인들이 이 지역에서 가나로 가져왔고, 그곳에서 북아프리카 상인들이 금을 사들였다. 금은 낙타에 실려 아다고스트를 지나 시질마사로 운반되었다. 시질마사에서 타하르트나 다른 베르베르 공동체가 있는 지역을 통과하여 이프리카야 항구로 운반된 것으로 보인다. 노예무역은 무역로를 따라 형성된 오아시스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페잔에 있는 자윌라(Zawila)는 차드 호수 근처인 카와르(Kawar)에서 상인들이 획득한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곳으로 번영을 누렸다(Swanson 1978: 209-211).

그러나 AD 9세기 이전에 금 교역량은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초에 파티미드 왕조가 서부 사하라 무역로의 북쪽 지역을 정복하여 금 무역을 독점하려고 하였다. 로날드 메시에르(Ronald Messier)의 연구에 따르면 AD 10-11세기 사이에 많은 양의 서아프리카의 금이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븐 하우갈의 기록에 따르면 파티미드 왕조의 최서단 교역도시인 시질마사는 가장 중요한 금 교역도시로 파티미드 왕조에 보물창고 역할을 했다. 아부 하산(Abu Hasan)에 따르면 교역을 통해 들어온 금이 AD 847년 파티미드 왕조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다. 그 당시 이프리카야의 재정수입은 약 700,000-800,000 디나르(dinar)였었는데 시질마사는 약 400,000 디나르였으니 시질마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Swanson 1978: 214-215).

소금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식품으로 서아프리카에서 장거리 무역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최대의 소금 저장지였다. 사하라 사막이 습했던 시기에 형성된 호수와 강이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서 말랐고 물이 흠에서 소금을 녹여내 호수의 염도가 증가했다. 그 결과 호수 바닥은 방대한 소금 분지로 변했다. 예를 들어 1만 년 전 니제르의 빌마(Bilma) 북부 분지에 있었던 호수는 길이가 120km, 너비가 20km에 달했다. 물이 마르면 호수 바닥에는 농도가 50%에 달하는 소금층이 6m 두께로 쌓였다. 호수 바닥에 침전된 소금의 총량은 100만 톤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600만 톤까지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Lovejoy 1986: 40). 말리 북부의 타우데니(Taoudeni)와 테가자(Teghaza), 모리타니의 티시트(Tichitt)에도 방대한 사하라 소금 광산이 있는데 품질도 좋고 양도 아주 풍부하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었으나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하라 무역을 통해 이러한 소금을 거래하였다(Leader 1998: 262-263, 265).

사하라 무역이 활발했을 당시 얼마나 많은 소금이 거래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독일의 탐험가 구스타프 나흐티갈(Gustav Nachtigal)이 설명한 내용으로 그 양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는 19세기에는 빌마에서만 매년 낙타 7만 마리분에 해당하는 약 6,000톤이 수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1980: 97). 빌마의 소금은 정남쪽의 소금이 부족한 니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북부의 사헬지역에 공급되었으며, 더 남쪽인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남동부에도 거래되었다. 티치트, 테가자, 타우데니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정남쪽의 사헬 지역과 세네갈에서 나이지리아까지의 열대 우림 지역에 거래되었다. 나이저강은 사하라 서부의 소금이 유통되는 교역망의 대동맥이었다. 특히 말리의 팀북투는 소금 집산지였다. 수만 마리의 낙타가 팀북투로 모여들어 1년에 두 차례씩 소금 대상에 참여했다. 대상들은 테가자와 타우데니까지의 약 800킬로미터의 거리를 하루에 5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매년

소금 4,000~5,000톤을 가지고 팀북투로 돌아왔다. 이것은 순수한 암염 형태로, 소금판 하나의 무게는 약 30킬로그램이었다(Hopkins 1973: 48, Leader 1998: 269-270).

팀북투는 AD 8세기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무역 중심지로 성장했다. 팀북투는 사하라 무역로를 이용해 투아레그 대상들이 낙타를 이용해 운반한 소금이 거래되면서 교역의 중심지로 출현했다. 팀북투를 중심으로 상류 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젠네(Jenne)로, 하류 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가오(Gao)까지 나이저강의 수로를 타고 소금이 유통되었다. 무역과 나이저강의 하상 운송이 발달하면서 정치·경제적 통합체가 출현했다.⁷⁾ 이 도시들이 위치한 나이저 삼각주 지역은 이외에도 풍부한 어장과 농경지가 있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선, 특히 말린 생선과 쌀이 사헬과 사바나 지역에 수출되었다. 그 덕분에 젠네-제노는 소금과 구리 같은 사하라 사막의 산물들이 삼각주에서 생산된 말린 생선, 쌀과 교역되고 사바나의 산물, 특히 철이 사하라 사막과 삼각주의 산물과 교역되는 거래처로 발달할 수 있었다.

사하라 사막에서 생산된 판 모양으로 된 소금은 낙타에 실려 현재 말리의 팀북투까지 운반되었고, 이곳에서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중개인들이 소금의 가격을 올려 운송비도 치솟았다. 코트디부아르 콩(Kong)이나 가나의 곤자(Gonja)에 도착한 소금은 생산지에서 거의 2,000km 정도가 운반된 것이었다. 이때쯤이면 소금은 단순한 생필품의 용도를 넘어 귀중품이 되었다. 10세기에 가오를 방문한 아랍인들은 사람들이 소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암염을 갈거나 물을 뿌려 먹지 않고 활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다(Hopkins 1973: 47). 근세에도 소금은 곤자에서 생산지의 60배 가격으로 팔렸다(Iliffe 1996: 82). 이렇게 귀한 소금은 금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귀중한 상아나 콜라 열매와 교환되었다. 콜라 열매는 중독성을 가진 열매인데 강렬한 쓴맛으로 갈증을 해소해주었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의 사헬과 사하라 지역에서 선물이나 호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AD 13세기경 콜라 열매는 사하라 무역의 주요 거래 물품이 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청량음료인 코카콜라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사하라 무역로의 발전은 낙타의 도입으로 장거리 무역이 가능해졌고 두 지역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무역의 성장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했다. 사회의 수직적·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배와 통치체제가 발달하여 중앙집권적 왕국이나 제국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Leader 1998: 270-273). 그러나 사하라 무역을 통해 전해진 북아프리카의 문명은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독자적인 아프리카 문명으로 발전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사하라 무역로와 철기기술의 전파

4.1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철기기술의 기원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는 철기기술의 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철기기술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은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며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많은 야금술 역사학자들은 서아프리카에서 철기

7) 현지조사 당시 말리인들은 나이저강과 바니강이 만나는 몹티(Mopti)는 강을 통해 중요한 도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베니스"라고 설명했다. 중세 서아프리카 왕국과 제국은 나이저강 연안에 건설되었고 나이저강을 따라 무역을 하였다.

술이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로 단정하고 있다. 철기기술이 독립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틀림없다. 학자들은 페니키아인에 의해 마그레브 동쪽 지역으로 철기기술이 소개된 이후 서아프리카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북아프리카를 BC 800년 이전에 식민지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철기기술은 그 시기 이전에 사하라를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Tylecote 1975a: 1-9). 철기기술의 전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장거리 사하라 무역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에 이미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철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는 근동으로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4,500년 전에 철광석에서 철을 제련하여 날이 무딘 의식용 칼을 제작했다. 그러나 BC 15세기경에는 히타이트인이 철을 대량으로 제련하였고 철의 제련 기술을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하면서 우수한 무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일대를 지배했다(Leader 1998: 173-174, Shillington 1993: 39).

독자적인 시작과 외부로부터의 전파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기기술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철과 청동기술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카르타고와 그리스 정착지로부터 사하라 사막을 건너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은 다음 내용을 고찰해 볼 때 더욱 타당성이 있다. BC 2,000년 무렵 이집트와 누비아 왕국(Nubia Kingdom) 중부 지방의 케르마(Kerma)에 청동기술이 있었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보급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BC 600년 전에 모리타니의 악주스트(Akjoujt)와 니제르의 아가데즈(Agadez)에서 구리를 제련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진정한 철 제련이 아주 늦게 이루어졌다. 누비아의 메로에(Meroe)에서 발견된 BC 200년에서 AD 300년까지 철제련 용광로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볼 수 없는 둥근모양의 용광로이다. 철기문명의 증거는 BC 600년 전 나이지리아의 타루가(Taruga), 노크(Nok), 그리고 은숙카(Nsukka)에서, BC 700년 무렵 또는 그 이전에 니제르의 터모트(Termot) 단층지괴의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나 왕국의 다보야(Daboya)와 거의 동시대인 약 BC 250년에 디아(Dia)와 젠네-제노의 중부 니제르 지역에 철기기술이 퍼졌고 사회변화가 가속화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C 800년경에는 디아에 철기기술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Arazi 2005: 280, 298-300). 나이지리아의 노크 지역의 조각된 테라코타들은 높은 지위의 개인을 숭배하기 위한 것으로 철기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전문적인 생산자, 그리고 특권의 표현과 힘, 권위의 획득과 관련된 것이 틀림없다(김광수 2004: 451-452).

현재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은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 확실하다. 근동의 철기기술이 페니키아 선원들과 베르베르 상인들에 의해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을 거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온 페니키아인은 청동과 철기기술을 알고 있었고 3,000년 전부터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꾸준히 무역기지들을 설립해 부유한 해상 도시 국가를 건설했다. 그중 가장 큰 도시 국가가 바로 2,800년 전 현재 튀니지에 세워진 카르타고였다.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은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민족인 베르베르인과 교류하면서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 일대를 장악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고전문학 작품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카르타고인이 세네갈강 어귀와 그 너머까지 항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Doran 1977).⁸⁾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8) 헤로도토스(BC 485경~BC 425)는 카르타고 함대가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페니키아인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하한 남쪽 끝은 모로코 해안이다(Law 1978: 87-14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철기기술이 카르타고에 의해 바닷길을 통해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철기기술을 사하라 사막 너머 서아프리카에 전해준 것은 베르베르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Leader 1998: 160-181).

철은 틀림없이 베르베르인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 남쪽으로 전달한 귀중품이었을 것이다. 철광석은 사하라 무역로와 나이저강이 크게 굽이치는 지점이 마주치는 남쪽 지점에 풍부했기 때문에 철을 직접 제련하여 철기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철을 제련했다는 최초의 증거는 바로 나이지리아 중부 조스(Jos) 고원에 있는 타루가(Taruga)에서 나왔다. 이곳에서는 찌꺼기가 남은 화덕 13개가 발굴되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의 연대는 2,600년 전이다(Tylecote 1975b).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는 그 시기에 다른 곳에서 철이 제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사하라 사막을 넘어 아프리카에 급속도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Leader 1998: 181-182).

결론적으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철기기술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철기기술의 전파경로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이 어떻게 교류했는지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분야이며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철기기술이 독특한 용광로/화로 모양, 풀무, 예열된 공기의 사용, 그리고 여러 종류의 철의 생산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발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예를 들어 테라코타에서 금속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아프리카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철광석의 채굴과 왁스 제거 주조법(lost-wax casting), 그리고 구리, 청동, 황동 기술은 분명히 아프리카식 방법으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 전해진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김광수 2004: 275).

4.2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철기기술의 전파경로

BC 1000년경 이후부터 지중해와 유럽의 지식과 기술이 사하라 무역로를 넘어 사하라와 수단 지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철기기술이었다.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노크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BC 500년 초에 철기기술이 시작되었고 BC 200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wanson 1978: 89). 철기기술의 전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장거리 사하라 무역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에 이미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서아프리카 노크의 철기기술이 누비아의 메로에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로에는 BC 1000년경 후반부에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으나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메로에의 철기기술은 AD 1세기경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크의 철기기술과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Trigger 1969: 23-50).

이는 증명하기 어렵다. 중세 후기 삼각돛이 개발되기 전까지 정면의 바람만 이용할 수 있었던 단순한 가로돛을 가진 선박이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으므로 남쪽으로 멀리까지 항해하면 북쪽으로 귀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은 헤로도토스 자신도 의심했고 고고학적 기록으로도 입증되지 않았다(Phillipson 1985: 151).

9) 2017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 사이에 모리타니의 누악쇼트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모리타니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Mauritania) 관장인 마마도우 하디아 카네(Mamadou Hadya Kane)는 가나 왕국의 철기기술은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였다.

더구나 차드 호수 근처의 다이마(Daima)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철기기술이 AD 1,000년의 중간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이마는 메로에의 철기기술이 나이지리아에 전해지는 길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서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이 메로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서부 수단 지역의 철기기술은 이보다 적어도 500년이 더 빠른 것이다(Connah 1969: 30-33, Connah 1976: 321-352).

그러나 BC 1000년의 중간시기에 북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로 철기기술이 전파되었다는 문서로 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해 포스난스키(Posnansky) 같은 학자는 현재까지 서아프리카에 철기기술이 기원과 전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976: 292-293). 그러나 현재 서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을 녹이는 노의 형식이 서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사실은 서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이 외부에서 전해진 것이며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로 전해졌다는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서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의 형식은 메로에에서 사용했던 일반적인 용광로(shaft furnace)다. 고대 누비아인은 아마도 이러한 형식의 용광로를 이집트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지중해 동부에서 이러한 형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아프리카와 수단 지역에서는 철을 녹이기 위해 반구형 용광로(domed furnace)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반 용광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Swanson 1978: 91).

반구형 용광로는 BC 1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다. 로마인은 이 방법을 서부 유럽의 켈트족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광로는 BC 1000년경에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식민지시기 이전에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된 철을 녹이는 용광로의 형식이 BC 1000년경 서유럽과 지중해 서부 지역에서 사용된 형식과 비슷하므로 주로 윌리엄스(Denis Williams)와 타일레코테(R.F. Tylecote) 같은 학자들은 이전의 용광로 형식은 후자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철기기술이 북아프리카로부터 BC 500년 이후 서아프리카로 전해졌다는 것이다(Tylecote 1975a, Williams 1974: 51-67).

그러나 윌리엄스와 타일레코테는 서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은 페니키아인에 의해 북아프리카에서 전파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용광로가 페니키아에서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레반트(Levantine :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등)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현재 지중해 동부에서 사용하는 노의 형식을 받아들였다는 가정이 더 설득력이 있다. 동쪽에서 사용된 형식은 서아프리카에서 사용된 후자의 형식이 아니다(Williams 1974: 58).

BC 800년 이후 카르타고인이 다른 용광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서유럽 켈트족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한 적절한 증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페니키아인이 스페인에서 반구형 용광로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니키아인이 철기기술을 마그레브 모든 지역에 소개했다는 것이 맞을까? 페니키아인이 BC 8세기에 마그레브 지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북아프리카와 사하라는 신석기 시대였다. 그러나 마우레타니아(Mauretania : 마우레타니아: 아프리카 북서부의 옛 왕국, 현재의 모로코 및 알제리 일부를 포함)에서 발견된 최근 고고학적 자료는 모로코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와 함께 이러한 견해를 뒤집고 있다(Swanson 1978: 92-93).

BC 9-10세기 초에 현대 마우레타니아에 있는 악주스트의 거대한 구리 광산이 운영되었고 구리로 만든 도구가 악주스트에서 서부, 동부, 남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의 구리기술 발달은 BC 8세기 이전부터 나타났는데 북아프리카에 페니키아 식민지가

시작되고 있었고 모로코 해안을 따라 첫 번째 페니키아 정착지가 생겨나고 있던 시기였다. 페니키아인이 악주스트의 발전을 자극하였고 마우레타니아 구리 산업은 아마도 청동을 사용한 모로코의 베르베르인과 악주스트 지역의 주민들이 BC 1000년 이후 서로 접촉한 결과물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악주스트의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이 스페인 선사시대 후기의 문화적 전통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다(Lambert 1971: 9-21, Mauny 1951: 168-180).

학자들은 BC 10세기 이전에 모로코에 철기기술이 소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철기기술이 페니키아인이 도착하기 이전에 튀니지에 소개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BC 2000년경 몰타(Malta)와 튀니지의 문화적 관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튀니지의 철기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Camps 1960: 31-35, Cintas 1961: 124-158). 베르베르인의 선사시대 연구에 대한 전문가인 캠프스(Gabriel Camps)는 구리기술이 카르타고가 건설되기 오래전에 이베리아반도에서 모로코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은 BC 2000년경 또는 신석기 시대에 이베리아와 모로코는 문화적 전통이 매우 유사했다. 선사시대부터 이베리아와 모로코 사이에 문화적 접촉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리기술은 BC 2000년경에 스페인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BC 1000년경 지브롤터(Gibraltar) 해협을 건너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García 1950: 99-101).

일종의 '문화통로(culture-route)'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서유럽의 철기기술이 이베리아를 지나 서사하라와 악주스트를 지나 전파되었다. 철기기술은 BC 1000년 중반경에 악주스트에서 나이지리아로 전파되었을 것이다. 노크 유적이 발굴된 지역에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구리가 발견되었으나 철광석은 풍부했다. 이러한 사실은 구리의 부족과 함께 아프리카인이 철기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Kun 1968: 98, 350-261). 둘째, BC 1000년 중반에 켈트의 철기기술은 이베리아에서 모리타니아와 모로코의 '문화통로'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켈트족의 반구형 용광로가 노크와 수단과 서아프리카 지역의 용광로 양식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이 페니키아인이 북아프리카에 전해준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대안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노크에서 나타나기 전에 악주스트에서 알려진 철기기술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악주스트와 노크 사이에 위치한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철기기술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실 노크와 악주스트가 BC 1000년 중반에 어떤 경로로도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악주스트의 구리로 만든 도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이지리아와 같은 동부나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Lambert 1971: 9-12).

5.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

5.1. 가나 왕국

가장 처음 출현한 수단 지역의 왕국은 가나 왕국(Ghana Kingdom)이었다. 가나 왕국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AD 8세기의 아랍 학자들이 설명한 것처럼, 가나 왕국은 오래전부터 흑아프리카의 소닌케(Sininke) 족 왕들에 의해 건설된 금으로 부유해진 국가라고 알려져 왔었다. 9세기에 가나 왕국은 봉신 국가(封臣國家, vassal state)¹⁰⁾들을 거느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10) 가나 왕국이 봉신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라 '제국'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누리며 제국으로 성장했다. 가나 왕국의 세력은 남쪽으로는 나이저강과 세네갈강의 북쪽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니제르 협곡(Niger Bend), 북으로는 사하라 사막까지 이르렀다. 가나 왕국은 사하라 중·횡단 무역을 통해 소금, 금, 상아, 구리, 노예 등을 거래하였다. 가나 왕국의 주요 도시인 콤비 살레(Kumbi Saleh)와 왈라타(Walata)는 북쪽으로 출하되는 금을 실은 대상행렬이 구성되고 준비를 하는 활동무대였기 때문에 북부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의 자원 교역이 부흥함에 따라 번성하였다(Shilington 1993: 82-86).

황금교역에 대한 지배는 가나 왕들의 부를 보장하였지만 가나 왕국은 산하자 베르베르족(Sanhaja Berber)들이 장악한 서쪽에 있는 아다고스트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베르베르족들은 아다고스트를 서부 사하라 지역의 무역 중심지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나 왕국의 소닌케 족이 산하자족들의 내분이 일어난 시기에 아다고스트를 점령한 AD 990년경에는 이러한 상황은 잠시 동안 휴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가 가나 왕국의 최고 황금기였다. 가나의 수도로 여겨지는 콤비 살레는 수단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과 지성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의 왕은 부와 화려함으로 알려졌다. 가나 왕국의 왕은 사신들을 접견할 때, 좋은 옷과 금들을 하사했고, 심지어 잘 훈련된 왕궁의 동물들을 주곤 하였다. 그의 세금은 왕의 금고를 가득 채웠고, 그의 군대는 평화적으로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가나의 왕,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하라 북쪽 사람들에게 퍼졌다(Nöthling, 1995: 133, 168-170).

5.2 말리 왕국

나이저강의 위쪽에 있는 카니아가(Kaniaga)의 남쪽 지역은 서아프리카 금 생산지의 근처에 있는 비옥한 농장지대로 만딘카(Mandinka) 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강력한 부족국가였던 소소(Soso) 족의 수마구루 칸테(Sumanguru Kanté)는 이 지역을 정복할 당시 전통에 따라 만딘카족 통치자의 아들을 모두 죽이고, 불구자였던 순디아타(Sundiata) 한 사람만 살려두었다. 순디아타는 성장하여 그의 약점을 극복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마침내 1235년에 수마구루 칸테를 멸망시켰다. 소소족은 빠르게 흡수되었고, 순디아타는 북부로 진출하여 1240년 가나 왕국의 남은 부분을 병합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황금 무역로와 사하라 교역로의 중심지였던 무역 도시들도 정복하였다. 말리 왕국은 불과 몇 년에 걸쳐 가나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니아니(Niani)에 수도를 건설한 후 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순디아타는 이교도였으며 그의 통치체제는 혈통과 부족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였다. 말리는 농경사회였지만 사하라 횡단무역의 상업적 가능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남부의 금 공급지역은 물론이고, 타가자의 소금무역뿐만 아니라 사하라의 구리까지 손을 뻗었다. 말리가 성장한 13세기에는 팀북투가 사막 대상들을 위한 물류 집산지로서 새로운 왕국의 중요한 도시로 발전하던 때였다(Ki-Zerbo & Niane 1997: 50-58, Shilington 1993: 94-95, 97-98).

만사 무사(Mansa Musa : 1312-1337)의 메카 순례에 대한 화려함과 웅장함은 역사가들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약 5백 명의 노예들은 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 3백 파운드의 금을 실은 1백 마리의 낙타들을 끌고 왔으며 카이로의 상점에서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카이로의 금 시장이 폭락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무사가 메카로부터 돌아오면서 아랍식 건축양식과 함께 많은 수의 무슬림 학자들을 데려왔다. 무사의 이슬람에 대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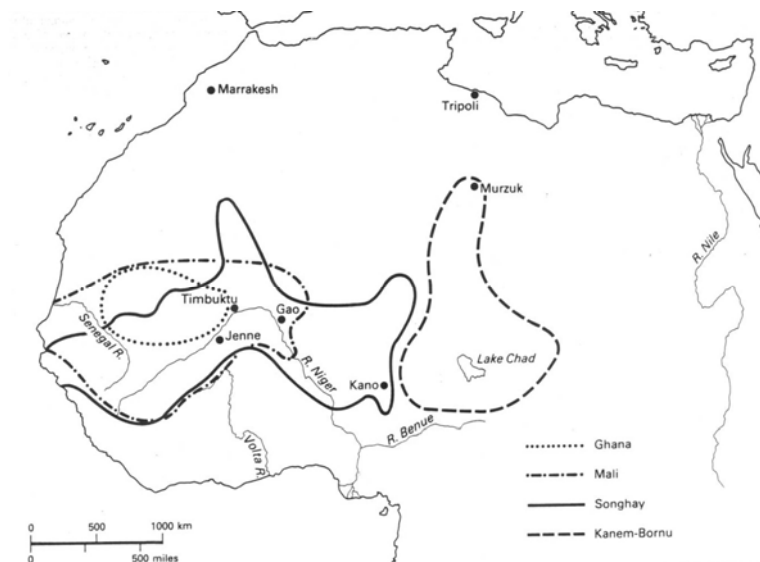
러한 주장은 말리, 가오, 카넴-보르누 왕국에도 적용되어 왕국과 제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에 대해 만사 무사의 조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가진 이슬람 역사가들이 즐거워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슬람 종교와 문명화에 대한 왕의 모든 헌신을 보면서, 왕이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 전통적인 제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했다. 만사 무사가 죽은 후 몇 년 뒤에 만사의 접견기록을 남긴 이븐 바투타(Ibn Battuta)는 이슬람 관습의 증거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또한 중요한 아프리카의 관습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Gilbert 2004: 106-109, Ajayi & Crowder 1985: 141-142, Onwubiko, 1985: 28-32, Ehret 2002: 326-329).

5.3 송가이 왕국

송가이(Songhai)인들의 기원한 지역은 니제르(Niger)강 하류의 쿠키야(Kukiya)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의 자(Za) 왕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으며 수니(Sunni) 족이 거주

<지도 2>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넴-보르누(Davidson 1991: 10)



하고 있었다. 쿠키야의 북쪽과 사헬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가오는 말리인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팀북투와 같아서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부, 서아프리카의 무역상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14세기 말이 되면서, 말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쿠키야의 수니족들은 가오 지역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Shilington 1993: 102-103).

먼저, 송가이의 이러한 전략은 개선된 무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부를 얻게 되었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오에 대한 지배는 니제르강 연안의 동서쪽 무역로에 걸쳐 송가이가 전략적으로 서쪽에 있는 팀북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가오에 대한 지배로 인해 송가이는 이슬람 문명과 더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5.4 카넴-보르누 왕국

카넴 보르누(Kanem-Bornu)는 지금의 차드 호수(Lake Chad;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호수. 차드,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 등의 국경선이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의 북동쪽에 있었다. 구전 역사에 따르면, 다구(Dagu)라는 아랍 지도자가 800년경에 카넴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의 자손들은 1846년까지 그 지역을 통치했다. 이 왕조는 다구의 할아버지인 세이프 비 디히 야잔(Sayf b. Dhi Yazan)이후 사이파와(Saifawa, 또는 Sefawa)로 알려졌다. 세이프 비 디히 야잔은 북서 아시아에 있는 예멘(Yemen)을 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영웅이었다. 아프리카에 지배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본래는 카누리(Kanuri ;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누 주와 니제르 남동부에 다수가 거주하는 아프리카 종족) 라는 언어를 쓰는 유목민족이었

던 카넴부(kanembu)족이었다.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날 차드, 니제르(Niger),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다(Shilington 1993: 87-88).

카넴은 무역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제국이 되었다. 상아, 노예 그리고 금을 수출했고, 소금, 구리, 연장과 말을 수입했다. 1150년에 카넴은 이슬람교도의 나라였다. 1200년대에는 북쪽과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1230년에 카넴은 가장 큰 영토에 갖게 되었다.

보르누(Bornu)는 카넴의 첫 번째 주였으나 1300년대에 유목민 침입자들이 사이파와 왕조를 카넴에서 차드호의 남서쪽인 보르누로 몰아냈고 1386년 보르누가 설립되었다. 1500년경 보르누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고 카넴은 1526년에 보르누의 한 주가 되었다. 이후 카넴-보르누는 이슬람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1591년 송가이의 멸망 이후 카넴-보르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다(Ogot 1999: 248-258). 그러나 1671년부터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1700년대와 1800년대에는 북쪽에 있는 투아레그 족과 남쪽에 있는 풀라니(Fulani) 인들에게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다. 카넴-보르누는 1892년과 1893년 사이에 다르퍼르인(Darfurian) 노예무역자인 라비 비 파들 알라(Rabih b. Fedl Allah)에 의해 침입 당할 때 까지 지속 되었다(Nöthling, 1995: 183-184).

6.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정체성

수단 지역에서 출현한 중세 서아프리카 왕국 또는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체제로 발전하지 못했고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모습으로 출현하였다가 단명했다고 주장하는 서구 학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역사 왜곡이다. 최소한 4세기 동안 지속해온 가나와 1230년에 순디아타(Sundiata)가 출현할 당시부터 약 200년 이후 수니 알리(Sunni Ali)에 의해 쟌네를 함락 당했던 말리, 1,000년 간 견고하게 지속되었던 카넴-보르누 제국까지 실존했던 수단 지역의 국가들을 폄하하는 것은 분명히 서구중심주의적인 역사인식이다(July 1970: 56).

레프치온(Nehemiah Levtzion)은 가나 왕국과 다른 초기 서아프리카 왕국의 발전을 연구하였는데 다르 티시트(Dhar Tichitt)의 문화전통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는 티시트의 석재 주거 형식과 성곽이 BC 1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며 더욱 복잡하고 규모가 큰 통치자와 정치조직이 출현했다는 문순(Munson)의 주장을 지지했다. 레프치온은 수단 지역에 철기기술과 말이 도입되면서 일종의 '기갑부대'를 갖추 수 있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정치조직의 출현과 왕국-제국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AD 1000년 경 중반에 정치조직의 성장이 진행 중에 있었고 사하라 목축민의 증가하는 압력과 사하라 무역로의 성장은 거대한 규모로 정치적 조직이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정치조직은 유목민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게 하고 무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1973: 13-14).

레프치온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가나 왕국의 수도로 여겨지는 콤비 살레의 발굴에서 이슬람 이전 시기의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으며 타크루르(Takrur)에서도 10-11세기에 번영을 누렸으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Swanson 1978: 217-218).

카르코피노(Carcopino)가 볼루블리스(Volubulis)에서 발견한 6세기와 7세기 라틴어 자료를 근거로 데이비스(Oliver Davies)는 가나 왕국의 정치조직과 문명은 모로코의 로마 도시인 볼루블리스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카르코피노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볼루볼리스와 가나 왕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AD 8세기 후반 북부 모로코에서 출현한 이드리스(Idrisid) 왕조가 6세기와 7세기에 번영한 볼리볼리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사하라 사막 건너 가나 왕국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료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Swanson 1978: 299-230).

그런데도 비잔틴 제국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Procopius)가 사하라 사막 건너 수단 지역에서 사는 지중해 출신 남성들에 관해 기술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AD 1000년 초기에 수단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단 지역에서 쓰인 가장 초기의 연대기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수집된 구전전통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17세기에 팀북투에서 기록된 자료 역시 구전전통에서 유래하고 있다. 17세기 서아프리카 고대사를 정리한 타리크 알-수단(Tarikh al-Sudan)은 가나 왕국을 통치한 왕들은 '원래는 백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서술했다. 17세기 후반에 쓰인 두 번째 연대기인 타리크 알 파타쉬(Tarikh al-Fattash)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가나 왕국의 카야 마가(Kaya Magha)의 통치자들은 흑인이 아니었고 아마도 베르베르인이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가나의 초기 통치자들이 베르베르인 또는 다른 지중해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아랍 지리학자들이 남긴 8세기부터 11세기 사이의 기록은 수단 지역에 출현한 가나 왕국의 통치자와 피지배자를 흑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12세기에 알-이드리시(al-Idrisi)는 수단 지역의 왕이 예언자의 가족인 샤리피안(sharifian)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따라서 흑인이 아니고 아랍인이 조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레프치온이 주장한 것처럼, 아마도 수단 왕들이 통치의 편의를 위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Swanson 1978: 230-232).

이러한 주장들은 아프리카 문명을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구의 시각은 훌륭한 아프리카 문명의 존재에 대해 언제나 부정하고 무시하였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이 북아프리카인이 통치자 계급으로 있었다거나 이슬람 문명의 아류(亞流)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아프리카 수단 문명이 사하라 무역으로 발전한 것은 맞지만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겪었다.

5. 결론

사막에서 발견된 암각화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타난 말과 전차에 관한 기록은 BC 5세기 이전부터 이미 사하라 사막을 건너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이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카르타고와 로마는 교류는 하고 있었지만, 북아프리카 전 지역에 대한 정복과 통치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사하라 사막 건너 수단 지역과 정기적이고 조직화한 장거리 사하라 무역을 하지는 않았다.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교류가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은 BC 5세기경 철기 기술이 전해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철기기술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철기기술은 구리와 청동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는 철기가 어떻게 아프리카에 도입되었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전파된 철기기술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광로가 아니라 반구형 용광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중해와 유럽의 양식이 전해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철기기술이 수단 나일강 유역의 메로에에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으나 철을 제련하는 용광로의 기술이 다르고, 중부 아프리카와 동부 아프리카에서의 발견된 철기 유적의 방사성탄소 연대가 메로에의 제품보다 앞서고 있어 인정되지 않았다.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족은 '사하라 사막'을 교류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바다로 생각하며 사헬지역의 오아시스와 사하라 사막 너머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까지 교류하였다. 그리고 AD 2~5세기 사이에 낙타를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베르베르인은 장거리 사하라 무역 대상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거리 사하라 무역이 정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세계에 편입된 북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금과 노예를 교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다.

사하라 무역로는 북아프리카에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까지 복잡한 그물처럼 교차하여 구성되었다. 무역로는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왕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며 확대되었다. 중요한 무역로는 가장 먼저 발전한 가나 왕국의 콤비 살레와 시질마사를 연결하는 무역로, 말리 및 송가이 왕국과 튀니스를 연결하는 무역로, 카넴-보르누 왕국과 페잔을 거쳐 트리폴리와 카이로에 이르는 무역로였다.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아랍인들은 동물 가죽, 상아, 후추, 콜라 열매 그리고 타조 깃털을 가져갔고, 반면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은 의복, 비단, 서적, 구슬, 거울 등을 수입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는 금과 노예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은 소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 물품이었다.

장거리 사하라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었다. 사회의 수직적·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배와 통치체제가 발달하여 중앙집권적 왕국이나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수단 지역에 출현한 가나, 말리, 송가이, 그리고 카넴-보르누 왕국은 사하라 무역을 기반으로 흥망성쇠를 이어갔다. 따라서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이 세계사에서 소외되거나 주변부화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 문명이 아프리카 내부와 단절되어 있었다거나 외부의 영향, 특히 북아프리카와 이슬람 문명, 지중해 문명에 의해서만 발전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반박되어야 한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문명은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문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아프리카 지역사'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일방적으로 북아프리카의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여 발전했다'라는 주장, 또는 '북아프리카는 제조품을 수출하였지만,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은 금과 노예 등을 수출함으로써 균형 잡힌 교역이 아니었다.'라는 주장 등에 대해 아프리카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더 많은 연구와 규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Arazi, Noemie. 2005. "Tracing History in Dia, in the Inland Niger Delta of Mali: Archaeology, Oral Traditions and Written Sources." Ph.D dissertation,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McNaughton, Patric R. 1977. "The Bamana Blacksmiths: A Study of Sculptors and Their Art." Ph.D. dissertatio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 Messier, Ronald A. 1972. "Muslim Exploitation of West African Gold during the Period of the Fatimid Caliphate." Ph.D. dissert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Nixon, Sam. 2008. "The archaeology of Early Islamic Trans-Saharan Trading towns in West Africa: a comparative view and progressive methodology from the entrepot of Essouk-Tadmekka." Ph.D. dissertattion,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Swanson, John Theodore. 1978. "The Not-Yet-Golden Trade: Contact And Commerce Between North Africa And The Sudan, To The Eleventh Century." Ph.D. disserta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2. 단행본

- 김광수. 2004. 『아프리카 역사와 문화』. 서울: 다해.
- 김윤진·김광수. 2013. 『서아프리카 역사 이해』. 서울: 다해.
- 롤랜드 올리버 지음, 배기동·유종현 옮김. 2001. 『아프리카 : 500만 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여강출판사.
- Abun-Nasr, Jamil M. 1971. *A History of the Maghrib*. London: Cambridge Univerisity Press.
- Ajayi, J.F.A. & Crowder, M.(eds.). 1985. *History of West Africa*, Volume One. Harlow: Longman.
- Bovill, E. W. 1968. *The Golden Trade fo the Moo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intas, Pierre. 1961. *Elements d'étude pour une protohistorique de la Tunisie*. Paris: Pressés Universitaires.
- Clutton-Brock, Juliet. 1993. "The Spread of Domestic Animals in Africa." In Shaw, T. et.al. (eds.). 1993. *The Archaeology of Africa: Food, Metals, and Towns*. pp. 61-70. London: Routledge.
- Connah, Graham. 1969. "The Coming of Iron: Nok and Daima." in Shaw, T. (ed.). 1969. *Lectures on Nigerian Prehistory and Archaeology*. pp. 30-36. Ibadan: Ibadan University Press.
- Crowder, Michael and Abdullahi, Guda. 1979. *A History of West Africa: A.D. 1000 to the Present*. London: Longman.
- Curtin, Philip D. 1984. *Cross-cultural Trade in World Hist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B. 1972. *Africa: History of a Continent*. New York: Macmillan.
- Davidson, B. 1991. *African Civilization Revisited: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Trenton: Africa World Press.
- Ehret, C. 2002. *The Civilizations of Africa: A History to 1800*.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García, Luis P. 1950. *La España Primitiva*. Barcelona: Editorial Berna, S.A.
- Gilbert, E. & Reynolds, Jonathan T. 2004. *Africa in World History*.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Hall, Bruce S. 2014. *A History of Race in Muslim West Africa, 1600-1960* (African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bert, Eugenia W. 1994. *Iron, Gender, and Power: Rituals of Transformation in African Societies* (African Systems of Thought). Indiana University Press.
- Hopkins, A. G. 1973. *An Economic History of West Africa*. London: Longman.
- Hrbek, I.(ed.), *General history of Africa III : Africa from the seventh to the eleventh century* (California, UNESCO, 1999).
- Hull, Richard W. 1977. *African Cities and Towns before the European Conquest*. W. W. Norton & Company.
- Hunwick, John O. 2010. *West Africa, Islam, and the Arab World: Studies in Honor of Basil Davidson*.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Illife, J. 1996.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J. 2001. *Introduction to African civilizations*. New York: University Books.
- July, Robert W. 1970. *A History of the African People*. New York: Scribner.
- Ki-Zerbo, J. & Niane, D.T. (eds.). 1997. *General History of Africa, vol. IV: Africa from the Twelfth to the Sixteenth Century*. Oxford: James Currey.
- Konczacki, .M. and Konczacki, Z.A. 1977. *An Economic History of Tropical Africa, Vol.1: The Pre-Colonial Period*. London: Frank Cass.
- Kun, Nicholas De. 1968. *The Mineral Resources of Africa*. Amsterdam: Elsevier Publishing Company.
- Law, R.C.C. 1978. "North Africa in the Age of Phoenician and Greek Colonisation." in Fage, J. (ed.) 1978. *Cambridge History of Africa*, vol.2, pp. 87-14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tzion, Nehemia and Hopkins, J,F,P. 2000. *Corpus of Early Arabic Sources for West African History*. Markus Wiener Publishers.
- Levtzion, Nehemia and Spalding, Jay. 2010. *Medieval West Africa*. 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 Levtzion, Nehemia. 1973. *Ancient Ghana and Mali*. London: Methuen and Co Ltd.
- Lovejoy, Paul E. 2003. *Salt of the Desert Sun: A History of Salt Production and Trade in the Central Sudan* (African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vejoy, Paul E. 2005. *Ecology and Ethnography of Muslim Trade in West Africa*. Africa World Press, Inc.
- Mauny, R. 1978. "Trans-Saharan Contacts and the Iron Age in West Africa." in Fage, J. (ed.) 1978. *Cambridge History of Africa*, vol.2, pp. 272-3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Kissack, P. & McKissack, F. 1995. *The Royal Kingdoms of Ghana, Mali, and Songhay*:

- Life in Medieval Africa*.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McNaughton, Patrick. 1993. *The Mande Blacksmiths: Knowledge, Power, and Art in West Africa*. Indiana University Press.
- Messier, Ronald A. and Miller, James A. 2015. *The Last Civilized Place Sijilmasa and Its Saharan Destin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Nachtigal, Gustav. 1980. *Sahara and Sudan II: Kawa, Bornu, Kanem, Borku, Tibesti*. trans. Allan G.B. Fisher and Humphrey J. Fisher. London: C. Hurst.
- Nöthling, F. J. 1995. *Pre-colonial Africa; Her Civilisations and Foreign Contacts*. Pretoria: Southern Book Publishers.
- Ogini, F. G. 1978. *An Outline History of West Africa 1000-1800*. Nigeria: Macmillan.
- Ogot, B.A.(ed.). 1999. *General History of Africa V: Africa from the Sixteenth to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UNESCO.
- Oliver, R. & Fage, J. D. 1962. *A Short History of Af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Oliver, Roland and Fagan, Brian M. 1975. *Africa in the Iron Age: c.500 B.C. to A.D. 14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wubiko, K.B.O. 1985. *School Certificate, History of West Africa, AD 1000-1800, Book One*. Onitsha: Africana-Fep Publishers Limited.
- Phillipson, D.W. 1985. *Africa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der, J. 1998. *Africa: A Biography of the Continent*. London: Penguin Books.
- Schmidt, Peter R. 1997. *Iron Technology in East Africa: Symbolism, Science, and Archae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 Shillington, K. 1993. *History of Africa*. London: Macmillan.
- Smith, K. & Nöthling, F. J. 1993. *North of the Limpopo: Africa since 1800*. Pretoria: University of South Africa.
- Williams, D. 1974. *Icon and Ima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right, John. 2007. *The Trans-Saharan Slave Trade*. London: Routledge.

3. 정기간행물

- 김광수. 2005.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아프리카 역사학의 새로운 접근: 아프리카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연구』, 19: 41-76.
- Brett, Michael. 1983. "Islam and Trade in the Bilad Al-Sudan, Tenth-Eleventh Century A.D."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24(4): 431-440.
- Camps, G. 1960. "Les traces d'un âge du bronze en Afrique du nord." *Revue Africaine* 104: 31-55.
- Connah, Graham. 1976. "The Daima Sequence and the Prehistoric Chronology of the Lake Chad Region of Nigeria". *Journal of African History* 17: 321-352.
- Doran, Michael F. 1977. "The Maritime Provenance of Iron Technology in West Africa." *Terrae Incogn* 9: 89-98.
- Gavua, K. and Apoh, W. 2011. "Alternative Site Conservation Strategies in Ghana: The Adome Ancient Ironworking Si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 Archaeological Sites* 13(2-3): 212-230.
- Lambert, Nicole. 1971. "Les industries sur cuivre dans l'ouest saharien." *West African Journal of Archaeology* 1: 9-21.
- MacGaffey, Wyatt. 2009. "The Blacksmiths of Tamale: The Dynamics of Space and Time in a Ghanaian Industry." *Africa* 79(2): 169-185.
- Martin, B. G. 1969. "Kanem, Bornu, and the Fazzan: Notes on the Political History of a Trade Route."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y* 10(1): 15-27.
- Mauny, Raymond. 1951. "Un âge du cuivre au Sahara occidentale?" *Bulletin de l'Institut Français d'Afrique Noire* 13: 168-180.
- McDougall, E. Ann. 1985. "The View from Awdaghust: War, Trade and Social Change in the Southwestern Sahara, from the Eighth to the Fifteenth Century." *The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26(1): 1-31.
- McDougall, E. Ann. 1990. "Salts of the Western Sahara: Myths, Mysterie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23(2): 231-257.
- Posnansky, M. 1976. "New Radiocarbon Dates for Northern and Western Africa." *Journal of African History*. 17(2): 161-195.
- Rowley-Conwy, P. 1988. "The Camel in the Nile Valley: New Radiocarbon Accelerator (AMS) Dates from Qaṣr Ibrîm."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4: 245-248.
- Swanson, John T. 1975. "The Myth of Trans-Saharan Trade during the Roman Er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8(4): 582-600.
- Trigger, Bruce. G. 1969. "The Myth of Meroe and the African Iron Age". *African Historical Studies* 2(1): 23-50.
- Tylecote, R. F. 1975a. "The Origins of Iron-Smelting in Africa". *West African Journal of Archaeology*. 5: 1-9.
- Tylecote, R. F. 1975b. "Iron Smelting at Taruga, Nigeria." *Journal of the Historical Metallurgy Society* 9(2): 49-56.
- Vansina, Jan. 2006. "Linguistic Evidence for the Introduction of Ironworking into Bantu-Speaking Africa." *History in Africa* 33: 321-361.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사하라 사막을 넘어 무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낙타가 이용되면서 장거리 사하라 무역로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수직적·계층적 구조가 형성되었고 지배와 통치체제가 발달하여 중앙집권적 왕국이나 제국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하라 무역로는 복잡한 그물처럼 교차되어 구성되었다. 중요한 무역로는 가나왕국에서 모로코(Morocco)까지; 팀북투(Timbuktu)에서 튀니스(Tunis)까지; 카노(Kano)에서 아가데스(Agades), 가트(Ghat)와 가다메스(Ghadames)를 거쳐 튀니스와 트리폴리까지; 그리고 보르누(Bornu)에서 빌마(Bilma)와 무르주크(Murzuk)를 거쳐 트리폴리까지 이어졌고 가트와 트리폴리로부터 이집트까지 계속 이어졌다

아랍인들의 관점에서는 금과 노예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과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반면, 서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는 소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다. 근동의 철기기술이 페니키아 선원들과 베르베르 상인들에 근동의 철기기술을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 전해 주었으며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하라 무역은 철기기술의 전파와 함께 서아프리카의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특히 수단 지역에 출현한 가나(Ghana), 말리(Mali), 송가이(Songhai), 그리고 카넴-보르누(Kanem-Bornu) 왕국은 사하라 무역을 기반으로 흥망성쇠를 이어갔다. 중세 서아프리카의 문명은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사막 북부지역과 현재의 기니 만 연안의 남부지역의 중계무역으로 꽃을 피웠다.

The Trans-Saharan Trade Route and Development of the Western Sudan Civilization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an exchange between North Africa and Western Sudan prior to the full-fledged trade beyond the Sahara Desert. The use of camel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ans-Saharan trade route, which dynamically changed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 in the West African region. A vertical and hierarchical societal structure has been formed, and dominance and rule of government was developed so that a centralized kingdom or empire can develop.

The Sahara trade route was constructed as a complex net. Some of the important trade routes include from the Kingdom of Ghana to Morocco; from Timbuktu to Tunis; from Kano to Tunis and Tripoli through Agades, Ghat and Ghadames; and continued from Borno to Tripoli through Bilma and Murzuk; then continued from Gat and Tripoli to Egypt.

From the Arabs viewpoint, gold and slaves were the most important items to trade with Western Sudan, while salt was the most important item for the West Africans. The iron technology of the Near East was provided to Phoenician sailors and Berber merchants through the Sahara Trade Route, enabling the development of Western Sudan civilization.

The Sahara trad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estern Sudan civilization with the spread of iron technology. Particularly in the Sudan areas, the kingdoms of Ghana, Mali, Songhai, and Kanem-Bornu have risen and declined based on the Sahara trade. Western Sudan civilization blossomed as a transit trade between North Africa or the northern region of Sahara Desert and the southern region of the Gulf of Guinea coast.

<국문 핵심어> : 사하라 무역로, 서아프리카 수단 문명, 철기기술, 금, 소금, 대상(隊商), 가나, 말리, 송가이, 카넴-보르누

<Keywords> : Trans-Sahara Trade Route, Western Africa Civilization, iron technology, gold, salt, caravan, Ghana, Mali, Songhai, Kanem-Bornu